

# 기독교의 정치참여 방법론과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

이장형(백석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정치 참여의 중요성
- III. 복음주의적 정치참여 방법론
- IV. 정치 참여와 사회윤리적 접근의 필요성
- V. 나오는 말

---

• ABSTRACT •

---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at those who took power supportive of certain religious beliefs or ideologies come to an undesirable end. In particular, those politicians who claim to be religious conservatives or evangelicals often make more political mistakes than others. What are the backgrounds and reasons for these phenomena?

It seems that Ronald J. Sider's theories on evangelical political participation can provide helpful insights for Korean society amid increasing controversy surrounding political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It is now more and more emphasized that religious expression should not remain within the private realm, but make its way into the public realm including politics to influence every sectors of society and expand the Kingdom of God. Under these circumstances, what factors and methods could be considered to pursue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political participation?

First, this requires establishing a Christian political philosophy. In his methodology, Sider talks about systematizing norm as the first stage. Here norm can refer to the criteria for making moral decisions. As far as the question of the good and right is concerned, every political decision should be made necessarily based on religious or philosophical systematization of norm.

Seco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society are needed. A biblical knowledge alone is not enough for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society.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human society demands a comprehensive study of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This calls on us to look into the thought of Reinhold Niebuhr, a realistic social ethicist and activist.

Third, a political participation based on a balanced human relationship is necessary. A human relationship always proves important for taking an ethical position. This is also true of political participation. A proper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should not be overlooked when it comes to political participation.

**Key Words:** Reinhold Niebuhr, Ronald Sider, Moral Majority, Religious Right, Abraham Kuyper, John Howard Yoder

---

## I. 들어가는 말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및 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기독교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상당수의 관료들이 기독교인임이 밝혀졌고, 기독교인들 스스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인정하면서도 종교인이 지도적인 위치에서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개인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종교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에서 보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감리교의 장로였으며, 목사로서 부통령을 지낸 함태영<sup>1)</sup>의 경우도 있다. 최근에도 총선이나 대선 때에는 기독교 정당을 조직해서 신앙을 정치이념과 동일시해서 구체적인 정치참여를 시도하는 이들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정권 확보나 정치적 참여에 매달린 경우는 대부분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기독교 내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직업에 있어서 전문직의 개념이 자리 잡은 현대 사회 속에서 정치적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힘 있는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의 정치참여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17, 18대 총선에 참여한 기독교정당(기독당 등)의 득표율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 함태영(1873 ~1962)은 독립운동가· 정치가로서 한성재판소 검사와 대심원·복심법원 판사를 지내다 1910년 한일합병 후 공직을 떠났다. 장로교 목사로 활동하면서 총회장, 조선신학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 1952년 제2대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에 의해 후보자로 추천되어 유효투표의 41.3%를 획득하여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17대 총선(2004년 4월 15일)		
정당명칭	총득표수	득표율
한나라당	8,083,609	37.90%
민주당	1,698,368	7.96%
우리당	8,957,665	41.99%
민주노동당	920,229	4.31%
자민련	569,083	2.67%
통합21	63,989	0.30%
녹색사민당	37,789	0.18%
기독교당	8,267	0.04%
사회당	8,004	0.04%
민국당	4,347	0.02%
노권당	2,582	0.01%
공화당	2,405	0.01%
희망2080	1,253	0.01%

\*출처: 중앙선거위원회

18대 총선(2008년 4월 9일)		
정당명칭	총득표수	득표율
통합민주당	4,313,645	25.17%
한나라당	6,421,727	37.48%
자유선진당	1,173,463	6.84%
민주노동당	973,445	5.68%
창조한국당	651,993	3.80%
친박연대	2,258,750	13.18%
기독교당	443,775	2.59%
진보신당	504,466	2.94%
평화통일가정당	180,857	1.05%
국민실향안보당	93,554	0.54%
한국사회당	35,496	0.20%

\*출처: 중앙선거위원회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데, 종교적 신앙이나 이념을 표방하고 정권을 잡은 이들이 부정적인 종말을 맞이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보수적 입장이나 복음주의적 입장을 견지한 이들의 정치적 실패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 미국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정치 참여에 대해서 로날드 사이더(Ronald Sider)는 1980년에는 로날드 레이건을 도운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와 ‘종교적 권리’(Religious Right) 운동 등이 전개된 것과 많은 근본주의자들, 신학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팀 라헤이(Tim LaHaye)가 “진정으로 영적 부흥으로 가는 길은 의회를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1980년대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많은 기독교인 정치지도자들이 선출되기도 하였고, 잠비아에서는 내각에 목사들이 임명되면서 ‘기독교 국가’임이 선포되기도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독재, 고문, 부정부패 등으로 실패하고 말았음을 지적하고 있다.<sup>2)</sup>

위의 지적 등을 포함한 로날드 사이더의 복음주의적 정치 참여 이론은 정치 참여와 책임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한국사회에 필요한 안목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는 10여권의 책이 이미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로,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을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윤리적으로 성찰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3)</sup> 2008년 초에 발간된 ‘The Scandal of Evangelical Politics’는 ‘The Scandal of Evangelical Conscience’(우리말 제목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에 이은 일종의 연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스캔들’이라는 말은 대개의 경우 부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느낌이 들기 쉽다. 많은 경우 남녀의 부적절한 관계나 추문을 연상하게 하는데, 원래 이 말은 헬라어 skandalon에서 온 것으로 신약성서에서 명사로 15회, 동사로 29회 사용되었고 상당히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논자는 사이더가 제시하고 있는 복음주의적 정치 참여 방법론이 우리 상황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독교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한국 교회의 정치적 참여의 중요성과 방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Ronald J. Sider, *The Scandal of Evangelical Politics* (Grand Rapids: BakerBooks, 2008), 16.

3) 그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파머 신학교(Palmer Theological Seminary)의 ‘목회와 공공정책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다. 그의 책 중 한국어로 번역된 책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the scandal of evangelical conscience),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 ‘물 한모금, 생명의 떡’(Cup of Water, Bread of life) 등이다.

## II. 정치 참여의 중요성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기독교와 교회의 공공성에 관한 언급들이 여러 모양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직도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심성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면에만 관계된다는 인식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는 신앙의 힘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포함한 공공의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정치참여를 위해서 고려할 점들은 무엇인가?

우선, 사이더는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복음주의자<sup>4)</sup>들이 갖고 있는 모순과 비밀관성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칙적인 면에서는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생명옹호’(pro-life)의 입장에서 낙태의 문제를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많은 비판자들의 언급처럼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을 보면 생명이 ‘임신에서 시작하여 출생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거나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위협받는 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음주의자들은 낙태, 안락사, 가정 문제 등에는 집착했지만 하나님 창조의 보전과 가난한자들을 돕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점이다.<sup>5)</sup> 사이더가 지적한 핵심은 정치적 문제의 해결이 세속적 이념이 아니라 깊고 세심한 신학적 성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4) 복음주의는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는데, 사이더가 말하는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그는 전통적인 기독교신앙과 실천으로 돌아오는 일종의 ‘부흥운동’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되심에 복종하며 성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과 실천의 최종적인 권위로 받아들이는 신학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로마가톨릭교를 비롯해 루터교, 개혁신교, 오순절교회, 재세례파, 웨슬리언, 동방 정교 등이 들어간다.

5) Ibid., p.19.

또한 사이더가 던진 “기독교인이 정치를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관심을 갖게 된다. 즉 기독교인들이 꼭 정치 참여를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이다. 사이더는 기독교가 정치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를 실제적인 측면과 신학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 즉 정치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결정들에 의해 수 백만명의 삶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만일 독일 유권자들이 히틀러를 수상으로 뽑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즉 정치는 실제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 참여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의 신앙고백은 예수를 온 세계의 주님이 되게 하며, 주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영역에서의 웰빙(Well being)과 이웃사랑 실천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행동의 지혜와 성서의 권위에 기초한 정치적 결정을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sup>6)</sup>

포스트모던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전보다는 정치의 힘과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특히 기업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경제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제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 단위로 행해지는 정책적 결정과 세계 문제 등은 결국 정치적인 영향력 가운데 결정되는 문제이다. 즉 어떤 개인이나 정당이 정권을 갖고 정치를 실현해 가는가 하는 문제는 한 사회를 형성해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간과할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정치는 문화와 종교에 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대학이나 학문 및 예술 분야 등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어떤 이념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존 칼빈(John Calvin)과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등이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섰던 것은 결국 정치적 영향력의 실상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Ibid., p.22.

### III. 복음주의적 정치참여 방법론

기독교의 공공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전문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종교개혁기의 칼빈이나 네덜란드라는 한정된 공동체를 이끌었던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방식의 정치참여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는 좀 더 전문화된 책략과 정치적 참여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열정만 가지고 참여한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성과를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정체성만 훼손하는 우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치적 결정을 돕는 체제나 방법론을 수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신앙인들이 지혜롭고 신실하게 정치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사이더는 성서계시에 기초한 규범의 체계화와 사회에 관한 세심한 분석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규범적 체계화, 사회와 세계에 대한 폭넓은 연구, 정치철학 정립, 특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 사회분석의 네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sup>7)</sup>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논할 때 전통적으로 논의하는 문제들과 방식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논자는 사이더가 언급한 방법론과 효과적인 정치적 참여를 거둔 바 있는 라인홀드 니버가 지적했던 부분을 함께 고려하면서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치참여 방법론의 세 단계를 제안해 본다.

첫째로, 기독교적 정치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 사이더는 그의 방법론에서 첫 번째 단계로 규범적 체계화를 언급했다. 여기서 규범이란 도덕적 결정의 기준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선하고 정당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종교적, 혹은 철학적 규범의 체계화에 기초하지 않는

7) Ibid., pp.41~45 참조.

정치적인 결정은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 효과적으로 성서적인 전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서의 이야기에 자신을 구체적으로 연결시켜 보면서 다양한 가르침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소위 성서주의(Biblicism)에 빠지지 않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기독교 공동체의 논의에 있어서 신학의 출발과 그 논의의 근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종종 신학적 논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인간들의 논의를 뒷받침해주는 보충자료나 이야기의 단초를 제공하는 데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성서의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사용을 하거나 그 뜻을 왜곡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신구약 성서의 주석, 이해, 해석 등에 있어서 매우 치열한 논의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성서에는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는 이에 따라서는 모순이나 긴장으로 여겨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서에 보면 대부분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적 입장에서 기록되고 있지만, 성서가 결코 유대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책은 아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 또한 매우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 초대교회가 완전한 평화주의를 추구하거나 이상주의적 공동체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성서는 정치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규범체계’를 제공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규범은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척도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치철학은 일종의 규범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철학은 성서적 자료와 사회에 관한 연구를 관련시켜 보게 해주는 일종의 로드맵(road-map)이 되기도 한다. 사이더는 정치철학에 대한 반성과 검토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기독교적 정치철학이 비기독교적 자료로부터 무비판적으로 정치철학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독교 정치철학은 성서의 규범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를 광범위한 사회, 경제, 정치적 분석에 온전히 적용할 경우에만 정립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정치 참여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누구를 위한 어떤 규범에 의존하는 정치인가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속에서 자유민주적 정치이념이 정립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기독교회가 역사 속에서 일치된 행동을 보이지 못했던 것도 정치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때로는 기독교 정치철학을 표방했지만 그 가치의 저변에는 이데올로기적 이념이나 실용주의, 물질적 가치에 기초한 사고와 행동들이 많았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 최소한 기독교는 일정한 규범과 덕목들을 우선적 가치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 윤리학은 잃어버렸던 개인의 덕성에 대한 회복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체계를 기독교적 신학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 용기, 절제, 사려깊음에 더하여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했던 것처럼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반실재론적(antirealism) 태도가 팽배해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 정치철학의 정립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 이해는 성서적 체계만 갖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세계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회, 경제, 정치 체계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현실주의적 사회윤리의 이론가 및 실천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라인홀

드 니버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니버에 대한 이런 평가는 그가 전통적인 규범윤리학 및 기독교 교리적, 성서적 윤리학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사회 현실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 상당히 정치적인 동기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하고, 마르크스 철학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 니버적인 해석에서 보면, 인간들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근원적 이기심과 집단과 관계된 힘의 영향을 받는다. 렌스키(G. E. Lenski)가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힘이라고 정의한 의미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힘의 역학 관계 속에서 이익과 관련된 견제와 균형의 상황에서 순응하거나 대항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삶의 현장은 힘의 각축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도덕적 이상이나 가치의 실현도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니버의 사회윤리적 통찰이다.

적실성 있는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현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는 경제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철학적인 차원에서는 같은 입장인 경우도 ‘최소 임금’ 등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경제적인 분석을 해보아야 한다. 니버는 1920년대 디트로이트 목회 활동을 통해서 자유주의적 기독교의 가르침과 주장이 현실사회의 인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무력한 것인가를 깨닫고, 자유주의적 낙관주의를 버리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인의 영리와 이익을 우선하는 고용주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주의적 사랑이 현실 사회 속에서 참으로 무기력하

[www.kci.go.kr](http://www.kci.go.kr)

8) G. E. Lenski, *Power and Privilege* (New York: McGraw Hill Books, 1966), 43.

다는 것을 절감하였던 것이다. 니버는 이런 무기력함이 자유주의자들처럼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보았고, 이런 현실 사회에서는 결코 사랑의 이상이 인간들을 통해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그는 이기적인 정치 현실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의라는 도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그 개념을 발전시켰다. 니버는 정의(justice)를 복잡한 정치 현실과 이상적 사랑(love)을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 보았던 것이다.

이올러, 기독교인들이 정치 문제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가져야 할 태도는 항상 겸손한 태도로 인간의 결정은 불확실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서적 체계와 책임 있는 사회적 분석을 거친 결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처음에는 성서적 규범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세속적 규범과 가치로 끝내게 된다면, 그 결과는 결국 타협적이거나, 근본적으로 비기독교적 정치 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셋째로, 균형 잡힌 인간관에 기초한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윤리적 입장의 결정에 있어서 인간관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이며, 정치 참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치 참여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인간을 어렵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실 정치 철학과 규범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기도 한다. 기독교 현실주의적 인간이해는 성공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 참여를 위해 꼭 필요한 안목을 제공하고 있다. 니버는 성서적, 아우구스티누스적 인간이해에 기초하여, 인간의 이기심을 예리하게 분석해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힘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사회윤리를 구상하였기 때문이다. 니버는 몇 가지 잘못된 인간 이해의 예를 지적한 바 있다. 우선, 죄인이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신의 형상’이라는 긍정적 이미

지가 간과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인간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조되며 타락한 인간이 현실세계에 행한 일은 선과 완전보다는 악과 불완전에 치우친 것으로 평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도덕적 성취가 갖는 상대적 차이를 무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도덕적 성취에 있어서 ‘약간 더하고 약간 덜한’ 상대적 차이가 갖는 중요성을 무시하게 되면, 현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니버는 극단적으로 문화적 패배주의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니버는 정통주의 기독교가 성서적 전통인 사랑의 법에서 뚜렷한 정치적 및 도덕적 원칙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대비되는 진보적 낙관론은 인간의 죄인,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창조적 능력에 대한 지나친 신뢰와 평가에 기초한다. 그들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갖게 되는 이기적이며 파괴적인 측면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적 능력과 종교적 능력이 역사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덕적 의지에 대한 무모한 희망은 종교적으로는 피상주의에 머물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사회 문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인간의 집단행위와 개인의 도덕적 이상 사이에 있는 항구적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니버는 진보적 기독교를 도덕주의라고 평가하면서, 진보적 기독교의 도덕주의가 그 자체로는 완전하고 순수할지 모르나 기본적 정의를 창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어느 사회에서나 기본적 정의는 인간의 공동 노력을 올바르게 조직하여 사회적 제 세력간의 평등을 실현한다. 또한 정의의 실현은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의 경쟁에서 빚어지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적절히 억제하는데 달려 있기 때문이다.<sup>9)</sup>

[www.kci.go.kr](http://www.kci.go.kr)

9) R. Niebuhr, *Interpretations of Christian Ethics* (New York: Meridian Books, 1956),

#### IV. 정치 참여와 사회윤리적 접근의 필요성

앞에서 기독교 전통과 신앙이 복잡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답을 주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회적 분석이 필요하며 니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인간관 연구를 통한 통찰력과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10) 사실 니버가 경험한 자유주의는 합리성과 사랑으로 인간 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인간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낙관적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 낙관적 인간관이란 인간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보는 것인데, 이런 인간관은 19세기 이래의 진보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더욱 고무된 것이었다. 그러나 니버는 인간의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즉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 혹은 경제 집단 내에서 생기는 갈등의 제거는 인간들이 어느 정도의 이성과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고 도덕적 선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해결은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한계 및 상상력과 지성의 한계를 고려해볼 때 불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즉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니버는 당대의 미국 문화를 이성의 시대(Age of Reason)의 환상과 감상에 젖어 있다고 평가하였다.<sup>11)</sup> 이렇게 되면 인간 본성의 도덕적 원천들과 한계를 분석하는 일, 인간의 집단생활

---

139~198.

10) 니버의 가계를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경의 영감 등을 믿는 복음주의자이면서도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진 목사인 아버지 구스타프 니이버(Gustav Niebuhr)가 있었고, 니버는 그의 영향을 받았다.

11) R. Niebuhr, *The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xxv.

에 있어서 인간 본성의 한계가 미치는 결과들을 추적하는 일이 요청된다.

결국 니버는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을 계발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한계들 특히 인간의 집단적 행동에서 노출되는 한계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변증법적, 관계적인 방식으로 해소한 인간관을 정립하였다. 인간의 본성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 면에서 능력을 갖고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인격 및 정체감을 형성해간다. 인간은 자연적 충동 때문에 타인들의 욕구가 자신의 것과 상충될 때조차도 타인들의 욕구를 고려할 줄 안다. 지성은 자애로운 충동을 증대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과 유기적이고 자연적인 관계에 의해 얽혀있는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권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인들에 대한 배려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sup>12)</sup> 사실상 개인이나 집단들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해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 관계를 떠나서 윤리적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갈등을 발생하는 이해 관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냉철한 통찰과 새로운 해소방법의 제시가 필요했던 것이다.

종교적 진리는 자연주의를 비롯한 과학적 사고에 의해 압도당하고, 도덕적 진리는 종교적 교리 및 권위주의적 도덕규칙으로 인해서 그 실제적 영향력을 잃고 형식화되고 있다는 니버의 현실 분석은 한국 사회에도 적용되는 문제일 것이다. 니버는 기독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올바른 인간 이해의 결여와 사회현상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서 찾았다. 즉 니버의 인간관 중심의 윤리적 통찰은 그의 사회에 대한 이해와 통찰 및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인 사회윤리구

12) Ibid., p.3.

상의 기초가 되었다. 니버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힘이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으로 분산되어서 서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힘의 남용을 방지하는 이른바 힘의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강조하였다.<sup>13)</sup> 이는 민주주의가 첨예하게 발전된 선진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미진한 부분을 안고 있는 발전 단계에 있는 사회에 주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니버 사상의 의의는 전통적인 인간관에 대한 재평가와 새로운 해석에 있으며, 이런 인간관을 바탕으로 현실주의적 사회윤리 체계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사실 인간관과 도덕이론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떤 도덕이론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성에 대한 올바른 이론이나 합당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믿어온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홉스와 흄을 거쳐 칸트에 이르는 도덕철학의 오랜 전통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4)</sup> 니버의 인간관은 인간의 개인적, 집단적 이기심에 대한 철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면서 정통주의 및 진보적 기독교의 편향된 인간 이해가 갖게 되는 한계를 지적해 내었고, 이를 관계적으로 통합하고 사회윤리에 적용하여 기독교 현실주의적 윤리체계를 구상해냈던 것이다.

또한 고려할 것은 니버의 사회윤리적 접근이 갖게 되는 약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sup>15)</sup> 그의 구상은 기독교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이기심과 힘의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방법으로 사회의 구조적 개혁을 추구하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윤리에 있어서 구조나 체제의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성품적인 요소와 개인에

13) 니버의 사회윤리학에 있어서 권력이 주는 의미는 김기순, 『權力の意義와 役割에 관한 社會倫理學的 研究』(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14) 황경식, 『倫理學에 있어서 人間觀의 문제-合理性과 自己同一性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철학회, 『철학사상』 제5집, 1996, 372.

15) 특히 여성신학자들은 니버의 신, 은총, 죄에 관한 개념 등이 지나치게 남성 위주의 발상이라고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그 대표자로 플래스코(J. Plaskow)를 들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논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다. Judith Plaskow, *Sex, Sin and Grace* (Washing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0), 51~94 참조.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평가 절하되는 측면이 있다. 공공신학이 신앙과 신학의 사사회를 비판하지만, 결국 신앙은 일정 부분 개인적 각성과 개별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덕성 함양을 강조하는 윤리적 보완이 요청된다. 사실 전통적인 철학자들은 인간의 보편성을 전제하고 올바른 하나의 인간관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하나의 도덕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덕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들은 인간론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인간의 고정된 인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은 인간성이 넓은 의미의 제도적 용인에 의존하고 그들의 함수로서 성립하며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 다양성을 보이기 때문에 인간성도 시대와 역사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sup>16)</sup>

니버는 원리로서의 정의와 실천으로서의 사랑을 동시에 강조했다. 즉 니버는 어떤 정의가 단순히 정의만을 고집한다면 이미 변질된 것이라고 하면서, 정의에 기초한 요구가 단순히 자기 이익의 계산에 집착하는 길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가페 사랑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랑 없는 정의는 단순히 권력의 균형에 불과하다. 동시에 정의가 없는 사랑도 사랑일 수가 없다. 존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사랑은 막연한 감상주의에 빠지는 위험을 갖는다. 니버에게 있어서는 사랑과 정의의 관계가 인간의 본성과 사회 및 역사적 현실 속에서 더욱 뚜렷이 분리되면서도 상호관계를 맺는다. 17)

16) 어떤 고정된 인간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더라도 여러 도덕이론 간의 선택범위를 좁혀 줄 수 있는 합당한 인간관에 이르고자하는 제3의 입장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인간의 합리성, 자율성, 자기 동일성 등이 있을 수 있다. 황경식은 도덕적 관점에서 실질적 함의가 보다 희박한 넓은 의미의 인간관에서 그 기능을 찾고 있다. 황경식, 앞의 논문 373 참조.

17) Gordon Harland, *Thought of Reinhold Niebuhr* (New York: Oxford University

니버의 윤리는 사회 구조의 문제와 정의라는 도구를 강조하는 기독교 현실주의적 측면에서 사회윤리의 남용과 오해에 기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윤리적 덕성 함양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 사회윤리, 정치윤리는 자칫 윤리적 적실성을 결여하게 된다. 2008년 5월 중순부터 서울 광화문거리는 시민들의 촛불로 가득 찼다. 신앙 및 신학적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시민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집회 초기에는 문화행사로서 국민적 의사를 표현하는 장으로 출발한 것이지만, 엄연히 정치적인 행위가 되고 만 것이 사실이다. 어찌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정치성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못하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근대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에 속한다는 평을 들어 왔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한국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우리는 남북통일이라는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발생한 사회의 갈등을 치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의 정치적 참여와 책임은 더욱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를 치유하고 바르게 이끌어야 할 기독교지도자들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책임있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윤리적 평가와 행동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요더(John Howard Yoder)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이후에 기독교가 보수든 진보든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여전히 유효한 규범이며 윤리임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과 여러 형식의 타협을 해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즉 예수가 들여온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집권자들의 방식과는 현저히 다르다. 예수는 강제력과 무력 대신에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평화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그런데 요더는 교회가 추구하는 평화주의란 톨스토이가 강조하는 인류애의 동기나 간디의 무저항주의에서 볼 수 있는 효율성에 기인하는 평화주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길인, ‘메시아적 평화주의’라고 말한다.<sup>18)</sup> 소종파주의로 치부되기 쉬운 평화주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평화주의는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견해이다. 이런 견해들은 자칫 중도적이거나 현실적인 입장이 갖고 있는 한계와 치우침을 다시 한 번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기능이 있다.

기독교에는 전통적으로 전쟁에 대한 세 부류의 이해가 있다. 우선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보고 전쟁 및 무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성전론자들이나 십자군운동적 이론들이 있다. 반대편에는 요더를 비롯한 평화주의자들이 있다. 퀘이커 교도, 여호와의 증인 등 기독교의 이단이나 소종파와 관련된 그룹 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주류적 입장은 정당 전쟁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은 주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질 때, 산출되는 선이 악보다 많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 등 정당화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당전쟁론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이래 신학적 입장의 주류가 되기는 했으나 그 정당화의 기준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와 애매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이기심에 따라 정당화 논변을 풀어나갈 가능성도

18) 요더는 “신자의 십자가는 그들이 견뎌내도록 요구받는 모든 종류의 고통, 질병 혹은 갈등과는 다르다. 예수의 십자가처럼, 신자들의 십자가 역시 사회적 영합의 거부에 대한 대가다. 라고 말한다. 존 하워드 요더, 신원하·권연경 역, 『예수의 정치학』(서울: IVP, 2007), 175 참조.

충분히 있는 것이다. 요더 등 평화주의자들의 공헌은 결국 이런 논쟁점들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과연 우리의 정당 전쟁 논변은 치우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고 건전한 방향을 잡아 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독교 내에 평화주의의 논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은 힘에 의해 통치되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며 기독교 고유의 삶의 방식과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신하게 해준다.

## V. 나오는 말

우리 민족은 정서적으로 흥이 많고 감정적 기질이 발달해 있다. 민주사회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식의 태도는 없어져야 한다. 이제는 좀 더 차분하게 내적 성찰을 필요로 하는 때가 되었다. 전에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용기와 희생을 필요로 했으며 그 수단도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은가? 정치와 관련된 문제는 신앙고백이나 성경의 잣구만을 갖고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성서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예리한 사회분석의 틀을 갖고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정치의 본질과 참여에 대해 오해와 머뭇거림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이 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가를 발견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 복음주의적인 정치참여는 어떤 구체적인 차별성과 단계를 필요로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성서적 규범과 사회 분석의 틀을 동시에 작동시키고 있는 사이더의 신학은 복음주의적 정치 참여에 있어서 구체적 방법론을 제안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연원은 이질적으로 보이는 라인홀드 니버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범서.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 \_\_\_\_\_. 『社會倫理學』. 서울: 도서출판 나남, 1993.
- 심상태. 『인간 - 신학적 인간학 입문』. 서울: 서광사, 1989.
- Friedrich, G. & Küng, H., 김균진 역. 『유토피아니즘과 기독교』. 서울: 종로서적, 1986.
- Honecker, Martin, 남정우 역. 『사회윤리학 이론의 구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MacIntyre, Alasdair, 이진우 역.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 Rachels, James, 김기순 역. 『도덕철학』. 서울: 서광사, 1983.
- Rachels, James, 황경식 외 역. 『사회윤리의 제문제』. 서울: 서광사, 1983
- Schweiker, W., 문시영 역. 『책임윤리란 무엇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Yoder, John Howard, 신원하 · 권연경 역. 『예수의 정치학』. 서울: IVP, 2007.
- Brown, Chales C. *Niebuhr and His Age* (Philadelphia: Trinity Press), 1992.
- Niebuhr, 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in Ethics and Politic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2.
- \_\_\_\_\_.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0.
- \_\_\_\_\_. *Faith and History: A Comparison of Christian and Modern Views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 \_\_\_\_\_. *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Problem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3.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A Christian Interpretation*. Vol. 1, Human Nature. Vol. 2, Human Destin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3.
- \_\_\_\_\_.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Living Age Books (New York: Meridian Books), 1956.

Pasewark, Kyle A. *A Theology of Power: Being beyond Domin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Sider, Ronald J. *The Scandal of Evangelical Politics* (Grand Rapids:  
BakerBooks), 2008.

Smith, Michael Joseph. *Realist Thought from Weber to Kissinger*.  
(Lond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6.

논문접수일: 2008. 10. 30

심사개시일: 2008. 11. 12

심사완료일: 2008. 11. 22